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6호
2018. 3. 12
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기념사업회 2018년도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행사 계획 의결

추모식 및 묘지참배 행사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개최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3월 5일(월) 낮,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에 있는 '더 부페'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홍성덕 부이사장의 주재로 김유진 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몇 가지 현안을 보고하였다. 특히 탄생1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있었다.

홍성덕 부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홍범도장군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홍범도 장군의 위업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어 대한민국해군에서 홍범도함을 취역시켰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장군의 흉상을 제막하고 홍범도장군실을 개설했다고 설명하였다.

정관에 따른 안건 처리는 황원섭 이사 진행으로 상정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2017년도에는 기부금 수입 1천554만 원, 보조금 931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3만 원 등 합계 2,828만 6,584원의 수입이 있었다.

지출부분은 봉오동전투 전승97주년기념행사 488만원, 추

모식 및 학술회의 895만원, 도서인쇄비 955만원, 우편료 279만원 등 합계 3천80만1,780원을 지출하여, 251만 5,196원이 부족한 적자예산을 시현하였다.

2018년도에는 장군의 탄생150주년을 맞이하여 탄신일인 10월 12일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조하여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봉오동 전투 전승 98주년 행사는 6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하고, 10월 24일에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묘지 참배행사를 거행하고, 25일에는 알마타 고려극장에서 추모식과 더불어 연극 '홍범도'를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사업회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은 예년처럼 분기별로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사항으로 지난 1월 23일 개최된 홍범도함 취역식 및 함장 이·취임식 참석 내용을 설명하고, 이종찬 이사장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위촉 사실을 보고했다.

홍헌일 감사, 감사보고

홍헌일 감사는 정관 제16조와 39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종합자료집 발간 경비가 초과 집행되고, 임원 및 회원의 회비납부가 저조하여 적자예산을 시현했다고 보고하고, 임원들의 회비납부를 독려했다.

〈이사장 논단〉

3·1독립선언을 다시 생각한다.



이종찬
(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는 기미년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 되는 해다. 내년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열릴 것이다. 독립선언은 3·1 독립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해 몇 차례 독립선언이 있었다. 그 가운데 우리 역사교과서에 오른 독립선언은 대개 3종이 있다. 그 3종의 선언에 일치된 논리는 우리나라의 진로를 제시한 부분이 있다.

첫째 모든 독립선언에서 우리의 역사를 반만년으로 확고하게 정의했다. 무오독립선언은 통칭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이유는 선언 일자가 “단군기원 4252년 2월 ○일”로만 표시되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양력으로 추정하여 대한독립선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 민족의 한(韓)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고유 권한”이라 했다.

1919년 2월 8일에는 침략국의 심장인 도쿄에 유학하던 애국학생들이 결기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를 2·8독립선언이라 한다. 여기에는 “43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 제일 오래된(最古) 문명 민족의 하나라”했다.

3·1독립선언은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로서 이를 선언한다”고 하였고, 선언일도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 했다.

이처럼 세 번의 독립선언서 서두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역사를 4300여 년이 되었음을 애써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미개한 식민지가 아니라 반만년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긴 역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일

본에게 군사적으로 강점당하고 국토를 빼앗겼을지언정, 나라의 정체성마저 빼앗긴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1920년 2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입법기관) 제7차 회의에서 단군 조선을 세운 10월 3일(음력)을 건국기념일이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 10월 3일을 개천절(National Foundation Day)로 결정했다.

둘째, 모든 선언문에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독립은 정의로운 세계로 가는 길ियो. 자유와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점을 탐욕스런 제국, 일본에게 알리고 각성시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즉 대한독립선언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독립”이라 역설했다. 또 2·8독립선언에서 우리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새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3·1독립선언에서는 “아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새봄이 가득 차 평화가 넘치는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를 맺게 할 것”이라 다짐했다.

이제 독립선언 100년이 다가왔다. 오늘의 현실은 과연 우리 선열들이 선언한 바처럼 반만년의 문화민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정리되어 있는가? 우리의 헌법이나 국가정책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문화국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금년에 자랑스러운 평화의 축제, 평창 겨울철올림픽도 세계인의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선열들이 제시하는 확고한 역사관과 나라의 올바른 진로가 제시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기념사업회 소식>

기념사업회 임원, 홍범도함 취역식에 참석



<홍범도함 상륙통로에서 임원 기념사진>



<취역식 소연회에서 박노천 사령관과 임원들>



<홍성덕 부이사장, 강정호 함장께 감사패 전달>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성덕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임원들은 지난 1월 23일 용산역에서 KTX 편으로 창원을 거쳐 진해로 이동, 해군기지에서 개최된 홍범도함 취역식에 참석하였다.

취역식은 박노천(소장) 잠수함부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해지역 해군 지휘관과 관계기관 및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홍범도기념사업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개식사, 경과보고, 취역기 계양, 사령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상

보 5면 홍범도함 소식)

이어서 개최된 소연회에서 홍성덕 부이사장은 축배를 통하여 “일발필살의 홍범도 장군 전술을 계승하여 어떠한 적도 필살하는 필승 잠수함이 되기를 기원”했다.

취역식이 끝난 후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고재우 소령의 안내로 홍범도함에 승선하여 함 내부를 관람하며 미사일과 기뢰, 어뢰의 발사 요령과 승조원들의 내부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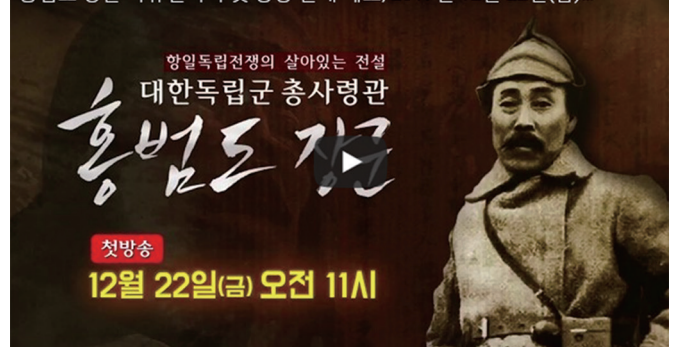
한편, 함장 이취임식은 사령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초대함장인 강정호 대령이 이임하고, 2대 함장인 조환래 대령이 취임하는 행사이다. 이 자리에서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 명의로 이임하는 강정호 함장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로 취임한 조환래 함장에게는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상생방송(STB),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장군 다큐 방송

증산교 STB 상생방송에서는 작년 11월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23시 약 50분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방송은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독립운동, 그리고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정착하는 과정과 역사적 교훈이 포함되었다. 이 방송에는 이종찬 이사장과 이울렉 고려극장 감독의 대담과 봉오동·청산리 전투현장, 러시아 연해주의 유적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크즐오르다 등 관련지역을 폭 넓게 취재하여 방송했다.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첫 방송 안내 예고, 2017년 12월 22일(금)...



〈기념사업회 소식〉

홍범도 장군, 육군사관학교에 홍상으로 부활



명이 참석하였다.

제막식에서 이종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육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적극 수용하여 홍상과 더불어 홍범도장군 실 등 교육 공간을 마련한 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제는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우리 국군의 뿌리로 계승하자고 제안하여 우

지난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99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하여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우당 이회영 선생 등 독립전쟁의 영웅 홍상 제막식이 있었다. (좌측 첫번째 홍범도 장군)

이 자리에는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완태 육사교장 등 관계자, 그리고 사관생도 등 300여

명찬 박수를 받았다.

이날 제막한 홍상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병들이 사용한 총탄의 탄피 300kg(보통탄 5만 발 분량)을 녹여서 만들었다.

홍범도장군 홍상은 현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동상을 3D 카메라로 촬영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제작하여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부활한 것이다.

이종찬 이사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으로 위촉

이종찬 이사장은 지난 1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2019년 4월에 기공하여 2020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독립전쟁 지도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는데, 이종찬 이사장은 3월 6일 육사 졸업식에서 우당 선생의 후손으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기념사업회 임원 송년회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작년 12월 27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오양수산회집에서 홍성덕 부이사장 주재로 14명이 참석하여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홍 부이사장은 건배사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을 대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감사를 표하고, 탄생15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날 식대는 홍헌일 감사와 홍성종 이사가 부담하였다.

<홍범도함 소식>

홍범도함 취역식 및 이·취임식 대한민국 영해 수호 임무를 시작하다.

홍범도함은 지난 2018년 1월 23일, 경남 진해에 위치한 잠수함사령부에서 취역식을 거행하였다. 홍범도함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전력화 훈련과 작전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뒤 6월에는 작전 배치돼 “보이지 않는 국가전략무기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천 잠수함부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해지

역 해군 지휘관 및 장병, 방위사업청·기품원, 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여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함께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박 사령관은 훈사에서 “최정예 잠수함 승조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비 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범도함 취역식>

이어서 홍범도함 함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강정호 초대함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 동안은 명품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조원 총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팀워크를 갖추도록 힘을 모으라”고 당부했다.

조환래 2대 함장은 취임사에서 “최고도의 전투태세 완비, 안전한 함 운용, 소통과 화합이라는 지휘목표 아래 홍범도함이 대한민국 해양수호의 최선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승조원 모두가 전력화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훈시하였다.



<함장 이·취임식>



<전략화 훈련 중 제주작전기지 최초 입항>



<부상자 이송 훈련>

〈임원 투고〉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 영웅 흉상 제막식 참관 소감

“홍상 제막은 국군의 역사인식의 대전환이며,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



황원섭(기념사업회 이사)

지난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독립전쟁 영웅 흉상 제막식에 이종찬 이사장과 함께 참석하여 감개가 무량했다. 독립전쟁 영웅 중 한 분으로 홍범도 장군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우리 국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날 제막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는 독립군 출신으로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광복군 출신 지청천 장군과 이범석 장군,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이다.

공교롭게도 김좌진 장군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역사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부각되었고, 지청천 장군과 이범석 장군은 1948년 정부수립에 참여하여 최고위 관직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과 우당 이회영 선생은 오랜 동안 감춰져 있던 인물이다.

홍 장군은 청산리 전투이후 러시아로 이동하여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러시아 적군에 참여하였고, 소련 최고지도자 레닌을 만나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교육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우당 이회영 선생도 무장투쟁론자이고 아나키스트라 하여 권위주의 시대에는 학문적 연구나 추모사업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 공산권이 몰락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한 후에야 비로소 학자들이 무장독립투쟁의 중심지인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지방을 왕래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군부에는 일제 식민사관의 폐습이 남아있어 독립운동과 무장투쟁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와 육군의 홈페이지에 우리 국군은 미군정에서 세운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국방경비대가 국군의 연원이라고 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국군은

미군정이 일본군 출신을 선발하여 조직한, 일본군의 후예이며 괴뢰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창군할 때,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 장군을 건군의 책임자로 임명했고 중요한 보직은 독립군, 광복군 출신들이 담당했다. 정부수립 후 국방부 장관은 훈령을 통하여 “우리 국군은 독립군,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공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자 다수를 차지한 일본군 출신들이 득세하여 국군의 전통성이 훼손되고 독립군 출신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여, 국군의 뿌리가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대로 둔갑한 것이다.

필자는 2011년 신흥무관학교 개교100주년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군의 연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국방당국에 건의하고, 신문 투고와 방송 인터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창군 당시 독립군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공포하여 임시정부의 군제가 국군의 뿌리가 된다는 논리를 제기해 왔다.

이번에 설치된 홍상 중앙의 표지석 상단에는 ‘압록강 행진곡’의 가사인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 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하단에는 독립정신 계승 의지를 담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후배 장병들이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홍상을 만들어 세우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어려운 여건에서 악전고투했던 독립군들의 혁혁한 공로를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로 이번 육사의 홍상제막은 우리 국군의 역사인식의 대전환이며, 가치관의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홍범도기념사업회의 노고와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재평가되어, 대한민국해군에서 2015년 홍범도함을 진수하고, 이번에 육사에서 홍상을 제막하여 홍범도 장군은 명실상부하게 날개를 달고 다시 부활한 것이다.

백산(白山) 지청천 장군



는 홍범도장군이 주도했으며 청산리 전쟁은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자령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청천 장군에 관해 알아보자.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난 지청천(池青天, 1888~1957년)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항일 독립운동가 겸 군인이었다.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지휘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여 광복군사령관·광복군 총사령관 등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치가 겸 정당인으로 활동하였다.

지청천의 호는 바로 백두산의 ‘백산(白山)’이다. 영원히 조국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군은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장군의 어머니는 강직하고 곧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셨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 훗날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청천 장군이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은 지식영 선생의 권유로 배재학당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배재학당에서 점차 민족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1904년 한국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1907년 일제에 의해 한국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는 일을 겪으면서 장군은 더욱 조직적인 항쟁을 위해 일본육군 유년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옛 선조들의 지혜에 따라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다. 이곳에서 장군은 동료들과 만남을 가지며 향후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군 보병중위로 있다가 그곳에서 탈출하여 만주 봉천성 유하현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 후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

을 거쳐 교장을 맡아 독립군 간부양성을 하며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본군의 교재, 전략서 등을 많이 가지고 나와 신흥무관학교 교리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가 일제에 의해 폐쇄되자 장군은 대한 독립군단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독립군단을 고려혁명군단으로 개편하고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취임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사주에 의한 소련정부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러시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겨우 풀려나올 수 있었다.

2천만 대한인민의 원수를 갚는 것, 대전자령 전투

“오늘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의 수 천 수만의 영혼이 보우하여주는 피의 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군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손만대를 위해 최후까지 싸우라” 이 말은 지청천 장군이 대전자령 전투에 나가기 전 독립군들에게 전한 말이다. 1930년 장군은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소속 독립군으로 한국독립군을 편성하여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전개하였다.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쳐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독립전쟁사 중 청산리 전투, 봉오동전투와 함께 3대 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1933년 6월 28일 한중 연합군은 부대를 세 개로 나누어 각 요지에 배치시켰고, 일본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대전자령을 넘고 있었다. 일본군이 산중턱까지 왔을 때, 연합군은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고 4시간의 접전을 펼친 끝에 일본부대는 전멸하였다.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독립군과 연합군이 만주를 침략한 일제의 승승장구하던 기세를 꺾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중국군과의 연합을 한 뒤 얻은 첫 승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딸 지복영은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항일운동가였고, 아들 지달수, 지정계 역시 항일운동가였다. 귀국 후 지청천은 두 아들 지달수와 지정계를 국방경비대에 입대시켰고, 이후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바뀌면서 군인으로 복무했다. 아들 지정계는 육군 소위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토벌대로 교전 중 전사했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정리: 홍성덕 부이사장)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3월 2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 61차 우당역사문화강좌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강의에서 100주년의 과업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홍성덕 부이사장



3월 13일 대한민국 무공훈장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25개 구 지회, 5,677명 회원을 관장)의 대의원으로 선임된다. 대의원은 모두 6명이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공로자회 이사는 4월 17일 오후2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4·19탑까지 행진하며 세계 4대 민주혁명화 주창을 위한 가두행사를 갖는다. 3대혁명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여기에 4·19혁명을 포함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4·19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우재 고문



(사)매현윤봉길월진회 회장은 4월 29일(토)부터 30일까지 예산 충의사 등에서 “예산에서 퍼져가는 평화의 울림-제44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주최한다. 이 축제에서는 문화공연과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김경호 이사



대구시 자문대사는 지난 1월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월 2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간부들과 함께 주한 우즈베크 대사를 방문하여 고려인들을 위한 한복 200벌을 전달하고, 타비즈 유소프 대사를 면담하여 대구시와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2월 26일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식에서 총장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인상을 받았다.

○이미자 이사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21일 제274차 임시회 1차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2월 26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장, 복지환경 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장은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소양을 갖춘 문화해설사를 양성 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공모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문화해

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8년도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3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회 회장은 1월 14일, 2월 11일, 3월 3일과 4월까지 지역총회를 거행하고 5월 13일에는 춘계선조시향제를 주관할 예정이다. 3월 3일에는 중회 회보 편찬을 위한 편집회의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홍이표 이사



애지모(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 회장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2018년도 애지모 학부모 및 청소년 비전스쿨 과정을 개최하였다.

학부모들은 사랑의 대화법, 자녀의 자존심 향상 및 칭찬기술, 우리 아이 안전 지키기 등 다양한 소재로 토의하며, 청소년들은 학습 플래너 작성법, 수행평가 위한 발표력 향상법, 꿈과 목표 콘테스트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홍재구 이사



(사)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은 1월 30일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드래곤힐스 스파 지하 1층에서 개최된 제46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임되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성덕 부이사장이 참석하였고, 이사장 명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김진중 자문위원



월간 순국 편집국장은 2월 8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사)한국문인협회 서대문지부(서대문문인협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8대 회장으로 연임하였다.

○문준진 사무총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코리아스포터즈(총재 문상주) 지역관리 위원장은 1,000만 직능단체 회원들과 함께 올림픽 붐 조성과 선수단 공항 환영, 응원, 평창/강릉 현지와 경기장내 응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기여했다.

○신효승 국장



2월 26일 개최된 연세대학교 2018년도 전반기 학위수여식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20세기 초 국제정세와 한인 무장독립운동”이다. 신국장은 본래 홍범도 장군 연구자로 앞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연구에 매진할 것이다.